듣는 강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연중 제31주일

돌무화과나무 위의 자캐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면 구경 삼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괜히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자캐오는 구경 삼아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왜 자캐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까지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것일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은 구절이 뒤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강하게 솟구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 새로운 삶에 대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막연히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세관장이라는 직책도 지녔고 세속적으로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앞에선 내색하지 않아도 돌아서서는 비웃고 멸시하고 있음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죄 많은 인생, 남보다 작은 키를 만회해 보려고 높은 곳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달려온 인생, 이제까지야 어찌어찌 주님의 자비심에 기대어 살아왔지만, 언제까지 이리 살 수만은 없지 않은가! 어느 날 문득 회의감이 들었겠죠.

주님의 자비와 초대로 자캐오의 삶에 변화가 시작되지만, 그전에 이미 그 역시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캐오처럼 우리도 새롭게 살고 싶다는 갈망,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캐오처럼 나무 위로 올라갈 용기가 안 나서, 내 작은 키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오늘도 그냥 주님 곁을 지나치고 있는 삶은 아닌지요?

1독서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시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의 죄를 보아 넘겨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나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자캐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보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캐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백남국 요한 **신부** | 신안동본당 주임

주일 전례

제 1 독 서	지혜 11,22–12,2
화 답 송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제 2 독 서	2테살 1,11–2,2
복 음	루카 19,1–10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홍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 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유튜브채널** 천주교마산교구

산을 넘고 넘어…

박재찬 안셀모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되돌아가는 순례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꽃이 핀 아름다운 들판을 기쁘게 걷기도 하고, 좋은 길동무를 만나 도란도란 행복한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험준한 산을 오르기도 하고 골짜기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벗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산을 넘고 넘어가는 여정에 비유해서 바라보면 어둠의 골짜기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 줍니다. 현대 영성가 토마스 머튼의 삶의 여정은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 줍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깊은 상심과 외로움 속에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좋은 벗들과 책들을 접하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느님을 체험함으로써 회개하여 가톨릭 세례를 받고 엄률 시토회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입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회개는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생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세례 받은 날까지 저의 삶의 이야기는 저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의 회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심은 전 삶의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정점들과 계곡들의 연속이며, 마지막 계곡보다 각각의 새로운 계곡들은 더 높다는 점에서 대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The White Pebble," in Thomas Merton: Selected Essays, 9) 실제로 그는 수도원에 입회하여 갈등과 시련을 거쳐 새로운 하느님을 여러 차례 체험하며 성장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여정에서 첫 번째 산의 봉우리에 올랐을 때에 저 멀리 보이는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과 평화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음 산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골짜기와 계곡을 거쳐야 합니다. 숲속에 있을 때에는 다른 산과 나무와 바위들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험산 산길을 오르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기심의 단단한 바위와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의 가시덤불들, 그리고 욕심과 욕망의 무서운 짐승들이 숲속에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묵묵히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다음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에는 첫 번째 산에서 체험했던 하느님과는 다른 새로운 하느님, 더 가까이 느껴지는 하느님을 만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온 험준했던 길을 되돌아보며 "내 힘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한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업고 이곳으로 왔음을 깨닫고 한없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하느님을 더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찬양의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내면에 쌓아 올린 높은 아집의 산이 무너지고 과거의 상처들과 죄스러운 모습들이 하느님 품 안에서 녹아들어 자비로운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그 모든 골짜기와 어둠은 하느님의 은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산에 오르기 위해서 그 산을 내려와야 합니다.

이 '산을 넘고 넘어가는 비유'를 통해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말을 하며 어둠의 골짜기 속에 있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도 우리가 넘었던 산들을 넘어 또 다른 산에 오르기 위해 골짜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겨우 첫 번째 산에 오른 내가 지금 신앙의 기쁨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함부로 다른 이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미 여러 개의 산을 오르고 지금 새로운 산에 오르기 위해 어두운 밤을 거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심판은 하느님이 하신다. 나는 다만 사랑만 할 뿐이다"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오히려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자세를 지니면 좋습니다. "내가 뭐라꼬!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까!"

우리가 성당에 나와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하며 자주 하느님 곁에 머무는 시간은 우리의 골짜기를 더 깊지 않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의 나눔은 어둠의 계곡 속에서 길을 찾게 해 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이 여정의 길을 걷다 보면 예수님은 산 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모든 곳에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한 14,6)

중동본당 본당의 날 행사

중동본당(주임: 김종필 가브리엘 신부) 본당의 날 행사가 10월 16일 명례성지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3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본당 신자 250명이 참석하였다. 시작미사 봉헌 후 성지에서 보물찾기, OX 게임, 줄다리기, 여자피구, 여자발야구, 어린이 과자 따먹기 등 다양한 게임과 상품이 제공되었다. 본당 신자들은 오랜만의 야외 행사에 좋은 날씨와 본당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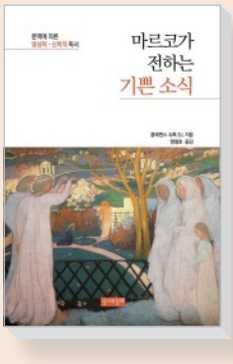
제35회 교리교사의 날

제35회 교리교사의 날이 10월 16일 성지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교구 내 교리교사 100여 명이 모여 한올 청소년교육문화연구소(소장: 김영구 요한)의 진행으로 친교를 나누고, 파견미사를 통해 교리교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파견미사는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으며, 미사 중에 근속시상을 거행하였다. 올해는 5년 24명, 10년 8명, 15년 2명, 20년 2명, 25년 1명으로 총 37명이 근속 표창을 받았다. 신은근 신부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교리교사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교리교사들을 격려하고 축복하였다.

성서 지혜문학 입문

- 출판: 성서와함께
- 지은이: 박요한 영식 신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가르침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지혜는, 지금도 우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한 삶의 길잡이로 여겨집니다. 지혜는 그리스도교의 경전인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주제입니다. 성경의 지혜 책들 역시 한 인간이 훌륭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교훈들을 전함으로써, 인간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이끌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현세적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는 이 참된 지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을 통해 성서 지혜문학에 맛 들여보시기를 권합니다. 참된 지혜를 찾고, 만나고, 누리는 그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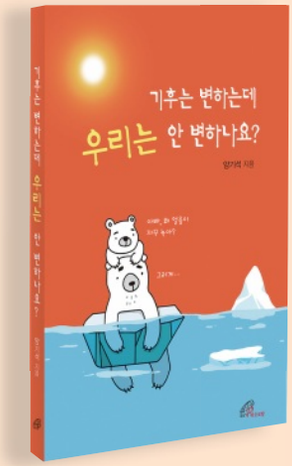


마르코가 전하는 기쁜 소식

- 출판: 성서와함께
- 지은이: 클레멘스 슈톡 S.I.
- 옮긴이: 염철호 신부

마르코복음서의 말씀을 그 자체로, 또 문맥에서 살펴보는 해설서

『마르코가 전하는 기쁜 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마르코복음서의 현재 본문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자료 비평이나 양식 비평이 주목하는 원본문이나 배후의 자료 등, 현재 이전의 자료들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고 지금 본문에만 시선을 고정한다. 마르코복음서의 이야기들이 그 자체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찾으려는 시도다. 이와 동시에 복음서의 개별 단락들이 문맥 안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그 단락들이 배치된 구조가 문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본다. 각 본문의 개별성과 하나의 작품이라는 복음서의 전체성을 균형 있게 풀어내려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



기후는 변하는데 우리는 안 변하나요?

- 출판: 바오로딸
- 지은이: 양기석 신부

기후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 지금! 생태적 회개의 길을 모색하다

이 책은 기후 위기에 직면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쉽고 명쾌하게 핵심만 짚어준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에 함께해 줄 것을 호소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초대에 동참하며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키워나가도록, 쓰고 버리는 우리 삶을 성찰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한다.

저자 양기석 신부는 생태환경을 위한 사목에 자신을 온전히 내놓은 사람이다. 오직 경험과 성찰을 토대로 개인과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 책은 본당과 기관 그리고 여러 활동 단체에서 활용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다. 이 책의 본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했고 표지는 코팅하지 않았다. 탄소중립 제로를 향한 걸음에 동참하기 위해 이 책의 수익금 일부는 나무 심기에 기부한다.

365 성경통독

- 출판: 바오로딸
- 그림: 김윤희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성경통독 노트

성경통독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긴 가방에도 쏙 들어가는 노트다. 두 가지 방법의 성경통독표와 성공적인 통독을 위한 7가지 루틴 그리고 마음에 남는 구절을 필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양장 제본이기에 보관하기 편하며 내 마음에 남는 성경구절을 필요할 때 꺼내 쓰기도 쉽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성경을 읽을 당시의 묵상이나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과 마음의 날씨를 기록하는 자리가 있다. 날짜와 요일을 직접 기록할 수 있기에 통독을 시작하는 날과 마치는 날을 개인의 사정에 맞게 정할 수 있어 더욱 실용적이다.

귀여운 캐릭터와 세련되고 편안한 디자인으로 되어있어 청소년들을 위한 단체 선물로도 좋을 듯하다. 본당의 단체, 특히 청년 단체에서 함께 말씀통독을 시작하고 일정 기간마다 기록한 말씀과 체험을 나누며, 마치는 날 기념 페스티벌을 해도 좋겠다.

어머님께 청하오니

고굉주 에스더 소설가/ 가톨릭문인회

"으아아악"

저녁 어스름에 주차하고 차에서 내려 걷기 시작하자마자 저 끝에서 이쪽으로 달려오는 검은 물체를 봤습니다. 비명을 내지르며 휙 지나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축 늘어진 아이를 안고 빠르게 뛰어갑니다. 엄마의 입에서 또다시 괴성이 터져 나옵니다. 아이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단지 저편에 서 있는 중앙병원을 향해, 움직임이 없는 아이를 안은 엄마가 다급히 뛰어갑니다.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연이어 고함을 지르며 달려갑니다. 머리카락이 땀으로 뒤범벅된 엄마는 두려움, 안타까움, 걱정을 민낯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119를 부르는 것이 늦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파트 사이를 가로지르기만 하면 병원에 곧바로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엄마는 아이를 안고 초인적인 속도로 뛰어갔습니다. 찰나였지만 긴박함과 심각함은 극도에 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슬펐습니다. 그 낯선 아이를 향한 제 마음도 절박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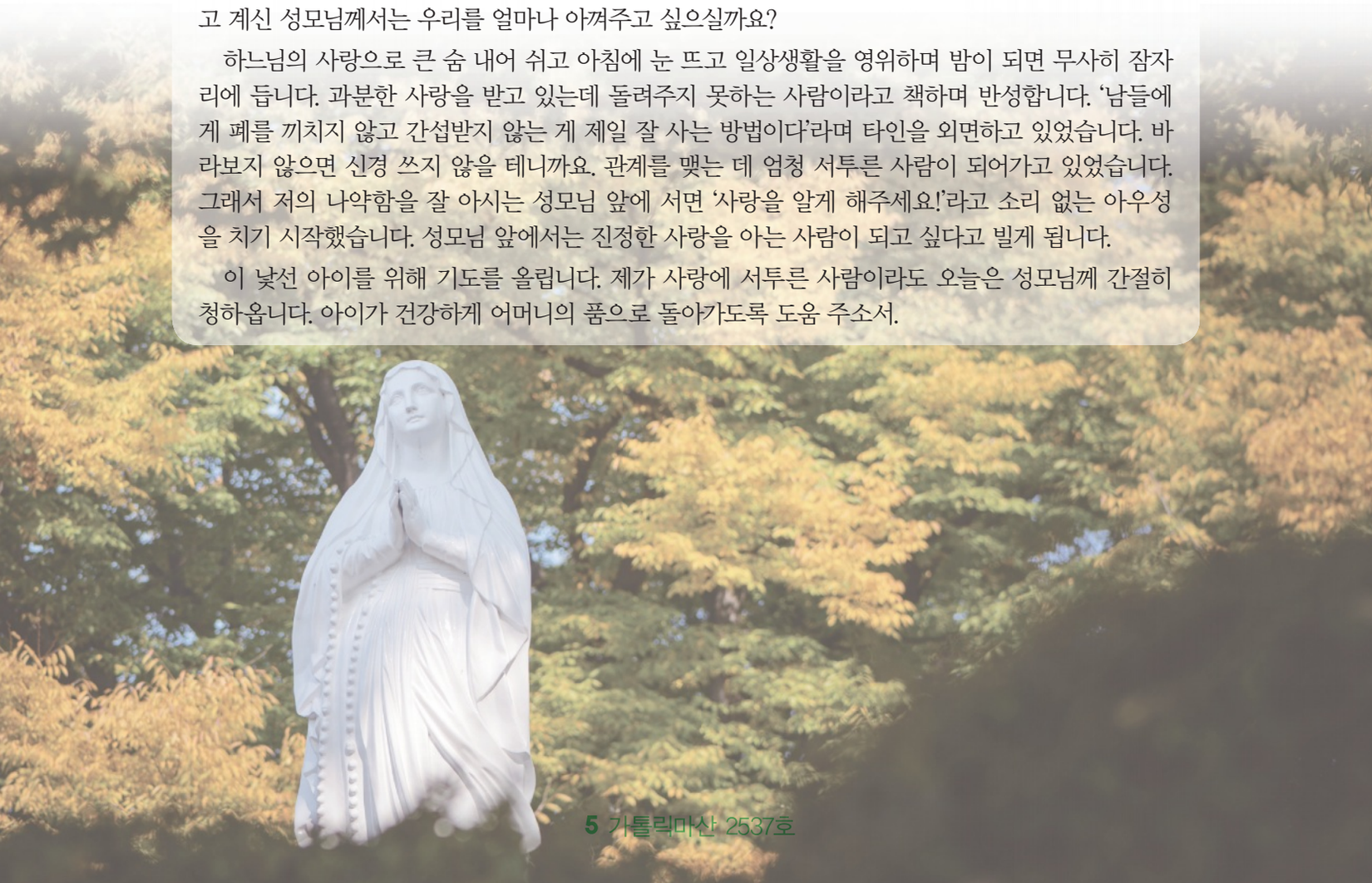
'성모님!'

어머님을 불러 기도드립니다. 늦지 않길 바랍니다. 아이가 큰 병 아니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열두 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가신 적이 있지요.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성모님은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걱정하며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때 성모님의 심경을 상상해 봅니다. 하느님께서 맡기신 아들, 그를 지키지 못했으니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을까요?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으셨을 때 예수님은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서운하셨을까요? 성모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고스란히 지켜보시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천상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아껴주고 싶으실까요?

하느님의 사랑으로 큰 숨 내어 쉬고 아침에 눈 뜨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밤이 되면 무사히 잠자리에 듭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돌려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책하며 반성합니다.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간섭받지 않는 게 제일 잘 사는 방법이다'라며 타인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요. 관계를 맺는 데 엄청 서투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나약함을 잘 아시는 성모님 앞에 서면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모님 앞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빌게 됩니다.

이 낯선 아이를 위해 기도를 올립니다. 제가 사랑에 서투른 사람이라도 오늘은 성모님께 간절히 청하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도움 주소서.



교구장 서리 동정

위령의 날 교구 합동 위령미사
일시: 11월 2일(수) 11:00
일시: 고성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ME 40주년 기념미사
일시: 11월 5일(토) 15:30
일시: 창원문성대학교

견진성사
일시: 11월 6일(주일)
장소: 대방동성당
집전: 교구장 서리 신은근(바오로) 신부

교구/본당

위령의 날 교구 합동 위령미사
일시: 11월 2일(수) 11:00
일시: 고성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신앙대학
일시: 11월 5일(토)~6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위원회/기관/단체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화) 10:30 교구청
창원: 1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1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피나) 010·4490·6996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7471·9258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어미사 안내
일시: 11월 6일(주일) 15:00
장소: 남성동성당
문의: 농아선교회 010·9207·8856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11월 기도모임
일시: 11월 7일(월) 14:00~14:30-성체조배
14:40~15:10-미사(주례: 정윤호 신부)
15:20-회의
장소: 하대동성당
대상: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교구 봉사자
문의: 회장 010·3903·8234

기 타

가톨릭청소년회 대구청소년수련원 수강생 모집
내용: 홈토킹!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대상: 7세~성인 및 실버
수업: 일대일 맞춤형, 기초회화, 여행 및 비즈니스 영어
문의: 053·593·1273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 2023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목적: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연구 지원
부문: ①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천주교 관련 학문 전공), ②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신청: 12월 14일(수)까지,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caf1@cbck.kr) 접수
문의: 주교회의 평신도인재양성·기금위원회 02·460·7533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위치: 창원시 북면 감계/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문의: 010·3551·2038

최재상 신부 9번째, 10번째 개인 전시회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며"
일시: 11월 2일(수)까지
장소: 창녕문화예술회관
일시: 11월 4일(금)~17일(목)
장소: 대구 범어동 제2주교좌 드망즈 갤러리

교구 2023학년도 유치원 신입 원아 모집
교구 내 유치원 신입 원아모집에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성미유치원(고현성당) 거제시 거제 중앙로 19길 18 문의: 055·636·4288
- 성모유치원(명서동성당)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77 문의: 055·265·0791
- 성모유치원(옥봉동성당) 진주시 향교로 42번길 5 문의: 055·741·4855
- 성심유치원(중앙동성당)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64 문의: 055·547·7187
- 소화유치원(문산성당) 진주시 문산읍 67번길 9-4 문의: 055·761·8755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미사 주례	문 의
교 구	10월 31일(월) 19:00	중앙동성당	고통, 성령	이슬기 안토니오 신부(여좌동본당 주임)		010·5072·5612
청 년	매주 (수) 19:30	교구청 별관 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20:00 기도회(1주: 미사, 3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1월 6일(주일) 10:00	서울 본부(동소문로)	korvocation@columban.or.kr	대상: (만)19세~35세
살레시오회	수시(문의바람)	창원 젊음의 집	심재현 치릴로 신부 010·2042·8353	대상: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국내·해외성지순례 모집
11월 독일·스위스·이태리 12일 성지순례
■제주도·한국성지 167 성지순례 모집
주중·주말 매주 출발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성악/기초발성 전문
성가, 가곡, 입시, 그룹레슨 운영
상남동 소재
김민형 요셉 010-5110-3039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가톨릭신문투어
▶11/29(화)~12/3(토) 베트남 125만 원
▶12/26(월)~30(금)
베트남 125만 원(홍성남 신부 지도)
▶23.1/9(월)~17(화)
이스라엘 445만 원
▶23.1/21(토)~29일(주일)
설특선 이탈리아 430만 원
www.cttour.org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신청·문의 02-2281-9070

보고, 듣고, 느끼는 공소 순례 6

이한우 이냐시오·강인성 이사벨라(봉곡동본당)

이렇게 가까운 곳에 공소가 있다니!

진주에서 30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쌍백공소가 아담한 모습을 드러내었다. 비록 옆 마을 평지리에 있던 공소가 불타서 이곳 평구리에 새로 건립되었다 하나 그것도 벌써 어언 50년, 원래의 고무정 교우촌으로부터 시작된 공소의 역사는 1890년경부터 130여 년의 장구한 역사를 간직한 셈이 된다. 문이 잠겨 있을까 봐 미리 연락을 드렸지만 둘이서 조용히 참배하고 오면 되겠지 하고 공소 옆길에 주차했더니 연세 지긋하고 단아해 보이시는 자매님 한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반갑게 우리를 맞이한다. 공소 회장이신 김 사비나 자매님이시다.

문을 열고 공소 안으로 들어섰다. 자그마하지만 정갈한 예배당은 공소의 역사를 이어온 많은 신자들의 기도와 신앙의 무게로 고요히 우리를 감쌌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저 멀리 타지에서 피난 와서 숨죽여가며 죽음과 박해 속에 신앙을 이어나갔던 공소의 선조 신자들. 그들의 애환과 절절한 기도가 역사 속을 이어와 벽돌 한 장, 천장 대들보 속에 스며들어 지금 우리 마음속 깊이 파문이 번지듯 반향하고 있었다.

기도문을 바치고 묵상을 하는 동안 조용히 옆에 계시던 회장님이 바로 옆의 자그마한 건물인 레지오 방으로 꼭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강권하신다. 조금 전 헐레벌떡 자매님 한 분이 또 오셨다. 공소 총무 정명화 요세피나 자매님이다. 우리 차가 도착하는 소리를 듣고 집에서 바삐 오셨다 한다. 차를 한 잔 나누며 우리는 이런저런 말들을 나누었다.

젊어서부터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려 고생하던 김 사비나 회장님은 신심 깊은 외숙모 손에 이끌려 20대부터 신자가 되어 이 공소를 벗어나 본 적 없는 공소의 산증인이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신앙의 무게가 느껴져 숙연해졌다.

"그래, 이 공소에서 제일 힘든 게 뭔가요?"

"힘들다기보다는 걱정인 게 이제 얼마 안있다 우리 몇몇 하느님이 부르셔서 가고 나면 이 공소가 없어질까 그게 제일 걱정인 게지요. 지금 우리가 남자 셋 합쳐 열다섯인데 젊은 사람이 칠십 대니 어쩔 것이요. 한 사람이라도 신자 만들려고 그리 애를 쓰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 벌러 다닌다고 그리 권해도 성당엘 안 오니…"

그래 이분들은 온갖 박해와 고난 속에서 자신들까지 이어온 선조들의 신앙의 터전이 자신들의 대에서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죄스러움으로 괴로워하시는 것이었다.

조금은 무거운 마음을 딛고 일어서려니 깨끗한 공책 한 권을 내미시며 우리 이름과 본당을 써 달라는 것이었다. 2022년 6월 4일… 차분히 날짜와 이름을 적어 나갔다. 우리가 첫 방문이라며 귀한 듯 공책을 거둬가신다. 인사를 마치고 공소를 떠나는 길, 골목이 끝나고 큰길로 나서는 순간까지 두 분은 손을 흔들고 계셨다.

이리 가까이 공소가 있었는데, 수십 년 만에 이제서야 가보다니!

그들의 신앙의 깊이는 얄팍한 나의 신앙과는 차원이 다르게 느껴졌다. 그들에게는 직접 바로 내려오는 선조들의 순교의 피와 눈물, 기도의 힘으로 양육된 깊이가 있는가 보다.

거대하고 휘황한 성당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깊고도 진한 여운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내내 고요했다.

▲왼쪽부터 정명화 요세피나(쌍백공소 총무), 강인성 이사벨라, 김점두 사비나(쌍백공소 회장)

- **공소 순례밴드 가입방법: 네이버 검색창 '마산교구 공소순례밴드' 입력 –〉 가입**
- **공소 순례 책자 구입: 010 · 9349 · 5088(교구 평협복음화분과 이한규 안드레아)**

▶공소 순례 기부금을 입금하신 분은 공소 순례 책자를 교구 평협 사무실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 16길 27 5층 평협**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무력으로 정복했을까?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이번 순례 때는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 11,23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그대로 “모든 땅을 정복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무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을까요? 사실 성경의 보도를 보더라도 서로 모순되는 정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 13,1-7은 여호수아가 이미 늙고 나이가 많았는데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필리스티아인들의 전 지역과 시돈인들의 땅은 차지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판관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과정을 여호수아기와 다르게 설명합니다. 판관기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먼저 땅을 상속받고, 그 후에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하였다고 보도합니다. 그런데 지파들마다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고학적 연구는 이 시대에 대해 무엇을 알려줄까요? 첫째, 기원전 13세기 말에 제작된 파라오 메르넵타의 비문은 파라오가 가나안 땅을 침공한 결과를 알려주는 승전비인데, 여기에 “이스라엘은 씨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메르넵타의 재위 기간이 기원전 1213년에서 1203년이므로, 이 무렵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문은 성경 밖에서 이스라엘이 최초로 언급된 중요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 비문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 것이 기원전 1250년경이라는 추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둘째, 고고학적 탐사를 통해 여호수아가 정복하였다는 도성인 예리코와 아이, 헤스본이 기원전 1400년에서 1200년경에는 폐허 상태로 비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편, 베텔과 하초르, 라키스와 같은 도성은 여호수아 시절에 파괴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에 불에 타다 남은 건물의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파괴는 가나안 내부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부 침입에 의한 파괴라면 가나안에서 유래하지 않은 유물들이 발견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그런 유물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기원전 13세기에 가나안의 중앙 고원지대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물이 부족한 중앙 고원지대보다는 주로 해안 지방을 따라 사람들이 정착하였는데 갑자기 인구가 고원지대로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발굴된 그릇들의 패턴을 조사할 때 가나안 밖에서 인구가 유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나안 해안 지방을 지배하던 이집트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해안 지방에 살던 이들이 고원지대로 대거 이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볼 때 여호수아기의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한 역사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과정을 이상적으로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모세의 영도력을 반사하는 이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일치단결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온전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선물인 땅을 분배할 때 제비뽑기를 하였고, 아무도 그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라합과 기브온족의 이야기는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인들의 유래에 관한 이상적인 설명입니다. 여호수아기는 이스라엘이 일치단결하여 회복을 위해 매진할 필요가 있었던 유배 시대에 과거를 이상화하여 설명함으로써 회복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기를 읽으면서 하느님이 선민인 이스라엘을 위해 가나안의 원주민을 쫓아내고 죽인 분으로 오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 과연 그런 분일까요?

출입구 조적공사

도로 개설 및 경계석 설치

옹벽 보강 블럭 쌓기

교구청 신축공사 현장

많은 은인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교구청 신축사업은 공정율이 84%가 넘었습니다.

그동안 공사를 위해 설치했던 외부 비계를 철거함으로써 붉은 벽돌건물의 웅장한 모습을 잘 볼 수 있으며, 내부에는 여러가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로 건물 주변의 도로와 경계석 설치공사, 본관동 보강블럭쌓기 공사를 하고 있으며, 전기설비공사로는 사제관 콘센트 박스 설치와 소화헤드 수정작업, 본관 및 사제관 엘리베이터 사춤 및 미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장공사로 사제관의 천정작업과 커텐박스 목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설치공사는 마무리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사용승인을 위한 공사를 마무리하여 12월 중순에는 사용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새 교구청 비품 봉헌 안내

교구청 신축에 따라 소성당, 사제관, 사무실 등에서 사용할
여러 가지 비품을 봉헌받고자 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봉헌할 수 있으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기간: **2022년 8월 29일 ~ 11월 13일**
- 내용: **성물 및 전례용품, 사제관과 사무실 비품, 영상기기, 운동기구, 기타**
- 문의: **신축 추진위 249-7121 또는 010-2741-7121**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교구청 신축기금 봉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간: 2022년 8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총액: 713,627,102원

1. 사제

성 명	금 액	성 명	금 액
구성진(4차)	600,000	유청(2차)	4,200,000
권창현(6차)	600,000	이상록(16차)	400,000
김길상(6차)	600,000	이정근(5차)	1,000,000
김대열	4,800,000	이현우(3차)	1,000,000
김동영(2차)	2,800,000	최태준(2차)	2,500,000
김현우(2차)	1,000,000	익명1(2차)	20,000,000
김형렬(15차)	400,000	익명2	5,000,000
서정술(5차)	600,000	익명3(2차)	1,800,000
신은근	10,000,000	익명4(4차)	800,000
신호열(2차)	3,290,600	익명5(3차)	800,000
계			62,190,600

2. 교구 내 기관, 시설, 단체

명 칭	금 액
비앙카회	43,000,000
의령본당 신반공소	1,500,000
칠원본당 제대회	1,000,000
계	45,500,000

3. 교구 내 개인

성 명	금 액	성 명	금 액
김기한	1,000,000	정구락	400,000
김영경	600,000	정두석	1,000,000
김효민	5,000,000	정수인	3,600,000
유영숙	4,800,000	하채원	1,000,000
이수용	250,000	익명1(마산)	20,000,000
이숙자	1,000,000	익명2(진주)	20,000,000
이재원	1,000,000	익명3(팔용동)	100,000
계			59,750,000

4. 개인(교구 외) 계 19,930,000원

김정선, 남경애, 박경희, 박기선, 박은정, 박찬경, 백주영, 서혜진, 신숭철, 심정애, 양인순, 윤은숙, 이수증, 정현호, 조화신, 진영화, 한미숙, 홍지연, 황우웅, 익명1

5. 해외

명 칭	금 액
덴버 성로렌스 한인천주교회	19,172,000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천주교회 · 본당공동체: 53,000,000원 · 개인: 25,050,000원 김회기, 박재범, 박재철&박경희 부부, 유한구, 윤선호, 이지은	78,050,000
LA 성삼 한인천주교회 · 본당공동체: 80,314,728원 · 개인: 14,474,600원 김동은, 김윤욱, 박홍기, 한상윤	94,789,328
콜로라도 스프링스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천주교회	5,982,840
기타 · 강수지, 김병철, 남정학, 최수아, 태런스 데이비슨, 황인경	5,760,000
계	203,754,168

6. 본당

▶ **기간: 2022년 8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총액: 322,502,334원**

■ 가음동 10,000,000원

- **완납:** 김만득(엘리사벳), 박명준(프로스펠), 박정철(베다), 백광열(도미니코), 변지성(제노비오), 이성칠(바오로), 이소연(크레산도), 이오성(루치오), 최삼용(베드로), 한만진(에드문도), 허광자(엘리사벳)
- **분납:** 강정순(유스타), 권기욱(베네딕토), 김경화(로사), 김대현(하상바오로), 김민숙(로즈마리), 김성애(로사). 김진혁(루도비코), 김해수(아타나시오), 김형진(요셉), 박중현(라파엘), 박찬일(베드로), 백문조(베드로), 백영훈(요한), 서광선(디오니시오), 선경열(안토니오), 양홍석(요한보스코), 엄현용(가브리엘), 유숙원(가브리엘), 이곡지(가타리나), 이영은(베로니카), 이영철(세례자요한), 이정미(프란체스카), 이필순(안나), 이해숙(로사), 정혜진(베로니카), 조재승(요한), 주정숙(가타리나), 주창현(레오나르도), 최홍규(시몬), 허성철(요셉)

■ 거제 3,250,000원

- **완납:** 김정곤(가브리엘), 천금련(헬레나), 김지숙

■ 거창 3,493,334원

- **완납:** 김성대(암브로시오), 김유태(베네딕도), 임광희(미카엘라)
- **분납:** 권현진(베드로푸리에), 김규태(프란치스코), 김양희(마리아고레띠), 김왕출(미카엘), 김정태(마르코), 박동운(마태오), 이천두(프란치스코), 정영록(가브리엘), 정지수(테오도로), 조현목(미카엘), 최준택(미카엘)

■ 경화동 3,970,000원

■ 고현 11,500,000원

- **완납:** 김상기(마르코), 김억(스테파노), 김종호(토마스), 김현자(모니카), 박순희(데레사), 박임생(로무얄도), 신유홍(베드로), 안유진(가스발), 양동걸(스테파노), 윤종혁(스테파노), 이금선(누갈다), 이세조(프란치스코), 이현숙(레지나), 이황금(루시아), 정공석(스테파노), 최웅규, 최충일(프란치스코), 허명호(하상바오로)
- **분납:** 강현숙(로사), 김명선(세실리아), 김명자(에스델), 김범준(라파엘), 김성철(베네딕도), 박미정(엘리사벳). 박자애(히야친타), 이근욱(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이영섭(그레고리오), 이육례(크레센시아), 이혜진(아녜스), 장순덕(요세피나), 장희자(벨라뎃다), 전병태(미카엘), 정성윤(라파엘), 정영분(비비안나), 정현주(루치아), 정회경(크리스티나), 정희수(안드레아), 조재희(마리아), 채윤선(로사리아)
- **추가:** 김가밀라(가밀라), 옥안나(안나), 유동환(가브리엘)

■ 구암동 5,490,000원

- **분납:** 강순녀(로사), 김경옥(데레사), 김동석(요아킴), 김둘란(막달레나), 김옥선(크리스티나), 김점이(카타리나), 김진홍(대건안드레아), 김화분(안젤라), 류관대(대건 안드레아), 문창옥(갈디노), 박남조(프리실라), 박연석(요셉), 안상덕(다니엘), 엄성숙(잔다크), 윤경순(안젤라), 이인태(베드로), 황명란(로사리아), 황송학(필립보네리), 황효숙(마리아)

교구청 신축기금 봉헌자 명단

■ 금산 8,320,000원

- **완납:** 강호진(실베스텔), 권은희(사비나), 김희수(루시아), 서상기(아우구스티노), 이동훈(치릴로), 이민우(미카엘), 정명옥(레지나), 정용윤(필립보), 정현찬(미카엘), 주영길(요셉)
- **분납:** 권동재(베네딕도), 김영성(라파엘), 박성범(스테파노), 방호구(토마스), 배채웅(이냐시오), 성인기(베드로), 전상윤(요한), 태광훈(스테파노)
- **추가:** 김경석(바오로)

■ 남성동 1,763,000원

- **완납:** 나미례(율리안나), 박분순(요안나), 박윤선(베로니카), 유미자(아녜스), 이미숙(루치아)
- **분납:** 곽옥순(수산나), 김태연(루시아), 박점숙(스텔라), 변희영(벨라뎃다), 신광순(발렌티노), 신소자(아가다), 이지현(프란체스카), 정경숙(카타리나), 최형두(다니엘), 최호영(스테파노)

■ 대방동 11,431,000원

- **완납:** 강현숙(세라피나), 권혁민(브루노), 김연수(아브라함), 박정대(라파엘), 박정석(요한), 송해동(요아킴), 신완철(미카엘), 오상규(T.아퀴나스), 이근우(마지아), 이동원(미카엘), 이상희(모나스), 이정우(안드레아), 이학준(모세), 최대건(대건 안드레아), 최양이(효주 아녜스), 최희찬
- **분납:** 김보영(엘리사벳), 김서현(안나), 김순임(세레나), 김옥곤(안드레아), 김일규(비안네), 김정오, 도칠훈(라파엘), 류상민(스테파노), 이종해(요한), 이주형(요한), 전상조(요셉), 전석만(베드로), 정병희(유스티노), 진우영(스테파노), 천무환(세례자요한), 최봉수(베드로), 최영묵(안토니오), 최장운(요한), 한호연(베드로), 허선화(베로니카)

■ 덕산동 5,670,000원

- **분납:** 고현(미카엘), 곽순희(라파엘라), 권길미(요안나), 김군자(마리아), 김리하, 김영애(로사), 김은수(요셉), 나동식(토마스), 문춘자(젬마), 박동진, 송민석(세쿤도), 송종규(요셉), 신숙(말가리다), 심병일(나자로), 엄영화(율리아), 유영숙(모니카), 이강설(루카), 이명신(체칠리아), 이재홍(니야시오), 이재환(마르첼로), 이정금(벨라뎃다), 장귀선(바울라), 조현찬(안드레아), 하재훈, 허은영(데레사), 황금숙(가타리나), 황상남(아셀라), 황희연(프란치스코), 익명4

■ 명서동 11,705,000원

- **완납:** 강맹근(다니엘), 강소이(리나), 김미영(마리아), 김순덕(헬레나), 김홍숙(세레나), 신도영(레오니아), 오세신(안젤라), 이귀분(마리아), 전인규(요아킴), 정수상(요한보스코), 주원돈(베드로)
- **분납:** 강봉수(요셉), 강영혜(율리아), 강지현(베로니카), 고민정(안젤라), 고성훈(베드로), 권정자(스테파니아), 기봉현(안젤라), 김경도(다니엘), 김영희(막달레나), 김은선(아녜스), 김정호(시몬), 김태근(요한), 김혜영(요셉피나), 박경규(안드레아), 박은지, 박재우(안젤로), 박진숙(마리아), 서상우(요셉), 송명주(루시아), 원영우(베드로), 윤상수, 윤희성(요셉), 이말수(베드로), 이미란(세실리아), 이박미(레지나), 이상수(베네딕토), 이수남, 이영기(가브리엘), 이용근(안드레아), 이의렬(대건 안드레아), 이진호(비오5세), 전운경(세실리아), 전진영(스텔라), 정지송(요한), 정지훈(요셉), 정진규(아브라함), 조계인(다니엘), 조남익(라파엘), 조미연(에메렌시아나), 조순동(엘리사벳), 채경수(리카르도), 최기은(살레시오), 최성국(요한보스코), 최옥희(루시아), 최은순(정혜엘리사벳), 최정애(카타리나), 최정환(알비노), 최현미(헬레나), 하연금(요셉피나), 허기영(다니엘), 허성열(울바노)

■ 문산 890,000원

■ 반송 14,000,000원

- **완납:** 강호연(스텔라), 김형록(프란치스코), 박상금(루시아), 변재윤(바오로), 신수철(세례자 요한), 심종훈(바오로), 안승구(프란치스코), 윤혜관(루치나), 정일화(세실리아), 조학래(바오로), 진수원(글라라), 황영자(요안나)
- **분납:** 강태선(마리아), 고대웅(토마스), 구본승(베드로), 김경태(요셉), 김국태(프란치스코), 김인숙(필로메나), 김종현(클레멘스), 김준형(라파엘), 김한(그레고리오), 남시완(시몬), 노재호(베드로), 박성철(F.하비에르), 박영동(펠릭스), 송정애(글라라), 여혜정(로엘라), 오동규(알베르토), 윤여웅(요한), 이율하(다니엘), 이현재(니콜라오), 이효경(요한 보스코), 임길섭(니콜라오), 조둘수(마리안나), 주희자(막달레나), 차경섭(베드로), 최호연(도마) 하정화(아가다), 한정란

(소화 데레사), 황경란(헬레나)

■ 북신동 9,780,000원

- **완납**: 김종철(베드로), 김현희(레지나), 박민정(마크리나), 서영미(루피나), 온영(아녜스), 이성훈(다니엘), 이외승(요한), 장민관(레오), 정만국(세례자 요한)
- **분납**: 강현주(로사), 김예준(미카엘), 김지영(로사), 김현철(세례자 요한), 안쌍덕(소화 데레사), 이상명(미카엘), 이정순(유스티나), 최종헌(바오로), 한승지(카롤로)
- **추가**: 이영순(모니카)

■ 사림동 9,795,000원

- **완납**: 김호재(디오시니아), 손용환(요셉), 신동상(마티아), 안재석(아만도), 안창규(토마스모어)
- **분납**: 강순희(레지나), 강승우(베드로), 김미영(노엘라), 김순희(레지나), 김진권(도미니코), 김희진(안나), 박무훈(요한 보스코), 박민용(안토니오), 방승태(요한), 손도선(마리아), 양종호(라이문도), 이승화(대건안드레아), 이승훈(베드로), 이영숙(요안나), 이정태(요한), 이현숙(사라), 정순녀(엘리사벳), 조임숙(아녜스), 최광선(로즈마리), 최숙향(베로니카), 최영민(유스티나), 허윤석(라우렌시오)
- **추가**: 주환수(미카엘), 하옥란(마리아)

■ 사천 4,736,000원

- **완납**: 이명행(마태오), 이미옥(안토니아), 이주원(바오로), 전평숙(헬레나), 허경애(릿다), 홍학수(마르코)
- **분납**: 강기갑(로벨도), 권영선(마리나), 김승현(요한 크리소스토모), 노승주(사도요한), 박중명(미카엘), 안숙연(마리아), 오남영(마리아), 이미자(실비아), 이한국(베드로), 제정백(F.하비에르), 제종원(프란치스코), 최전모(콜베)

■ 사파동 18,230,000원

- **완납**: 고춘자(헬레나), 김건호(안드레아), 김윤지(에스텔), 김정환(알베르토), 김진협(바오로), 김채원(아녜스), 김한경(요한), 김호진(바오로), 노주현(바오로), 문장헌(바오로), 박남이(말가리다), 배옥남(프란치스카), 신혜란(세실리아), 엄만섭(요한), 예창호(다니엘), 윤용선(토마), 이찬규(가브리엘), 장미정(도미니카), 한보혁(디모테오), 황창영(알베르토)
- **분납**: 고순배(스콜라스티카), 김대수(안드레아), 김동연(요한금구), 김승언(알베르토), 김은실(안젤라메리치), 김현순(안나), 문종철(미카엘), 박근아(마리안나), 박근하(알리시아), 박상인(요셉), 박선욱(베드로), 박선희(마셀라), 박영식(미카엘), 박원기(바오로), 박종열(마티아), 박주호(요한), 박지현(데레사), 박찬수(마태오), 박창욱, 박형근(마르코), 박희지(빈첸시오 아바울), 방필규(유스티노), 배창호(마태오), 송재웅(미카엘), 신종호(요셉), 원혜란(데레사), 이명진(비르지타), 이예환(데끌라), 이유홍(요한), 임재동(레오), 정재억(도미니코), 정현희(젬마), 천준홍, 최성석(바오로), 최우영, 함미경(크리스티나), 황만호(아우구스티노)
- **추가**: 이기완(이냐시오), 임소정(베로니카)

■ 산청 7,450,000원

■ 삼계 6,850,000원

- **완납**: 김종만(루치아노), 김일남(수산나), 박성만(요한데꼴제), 박종계(연희마리아), 손경희(마르타), 어정자(아가다), 유재두(루치아노)
- **분납**: 강순란(그라시아), 강장희(마르코), 김민정(소화데레사), 김성춘(T.아퀴나스), 김수미(크리스티나), 김용순(수산나), 김희정(미카엘라), 박재순(글라라), 양성환(라우렌시오), 이지혜(임마꿀랏다), 이진자(보나), 임종순(율리아나), 정연석(로마노), 이현숙(마리아)

■ 삼천포 4,320,000원

- **완납**: 강수정(베드로). 강은영(율리아나). 김재선(골롬바). 이극수(미카엘). 하옥례(안나)
- **분납**: 강헌(요셉). 김구성(프란치스코). 김혜림(헬레나). 소순덕(엘리사벳). 정재웅(요셉)

■ 상남동 3,426,000원

- **완납**: 김둘영(로사리아), 김태환(대건안드레아), 소명석(프란치스코), 손춘자(헬레나), 윤승재(라우렌시오), 장은경(골롬바), 최민자(히야친타)
- **분납**: 김부우(바오로), 김수학(비오), 박신석(바오로), 박희조(요셉), 배인숙(레지나), 안병영(라파엘), 안세환(요한), 윤필례(데레사), 이상옥(토마스), 장자림(마리스텔라), 장혜옥(루시아)

■ 상평동 2,100,000원

- **완납**: 강주철(안드레아), 강현숙(아가다), 김종덕(디모테

오), 서복순(크리스티나), 윤영희(알비나)

■ 안의선교 4,700,000원

- **완납**: 김초안(율리아나), 김태룡(비오), 백영규(도밍고), 장은애(루치아), 하은옥(베르타), 정금선(루시아)
- **분납**: 김외순(유리안나), 도용환(스테파노), 박금순(수산나), 박진규(바오로), 송성순(세실리아), 이옥경(크리스티나), 정종화(바오로)
- **추가**: 백영규(도밍고), 장은애(루치아), 하은옥(베르타)

■ 양곡동 3,550,000원

- **완납**: 권대운(비오), 김영환(요아킴), 박종석(안드레아), 이경숙(벨라뎃다), 이정숙(엘리사벳)
- **분납**: 박현수(요한), 송명옥(돌로레스), 최영철(요한)

■ 양덕동 12,000,000원

- **완납**: 강영이(헬레나), 강은주(스테파니아), 김종천(도미니코), 서원호(마르코), 신현순(데레사), 최봉림(세실리아), 추천석(베드로)
- **분납**: 강나윤(스콜라스티카), 강영재, 김기덕(안토니오), 김춘자(헬레나), 김형태(안드레아), 박만애(안나), 박영희(안토니아), 서지원(아가비또), 윤종수(마르코), 이성수(가타리나), 이숙연(엘리사벳), 이영훈(안드레아), 이정희(체칠리아), 임혜진(마리아), 정병수(펠릭스), 조정문(안드레아), 최옥분(마리아), 최춘일(치릴로), 황선미(로사), 황정현(마리아), 황화영(안젤라), 익명2

■ 여좌동 7,220,000원

- **완납**: 강판점(안토니오), 김맹선(유스티나), 김원태(베드로), 김정자(데레사), 송근만(라파엘), 이규호(안드레아), 이영혜(아녜스), 이원재(시몬), 전성미(마크리나), 정남수(희순루시아), 정민권(안드레아), 허윤향(데레사), 황평조(요한)

■ 영산 1,160,000원

- **완납**: 김재훈(요한), 이도이(로사)
- **추가**: 김대원(요셉)

■ 옥포 8,840,000원

- **완납**: 류열수(다니엘)
- **분납**: 강현용(아브라함), 강홍섭(스테파노), 김계순(모니카), 김상호(실바노), 김옥란(비비안나), 류열수(다니엘), 박희석(베드로), 이동욱(예로니모), 이재진(가브리엘), 이준규(요셉), 이준호(베드로), 전대영(베드로), 전영원(라파엘), 전진욱(라파엘), 정유섭(토마스), 정의숙(아네스), 진진옥(요한), 최병철(스테파노), 한정옥(바울라), 홍영희(루시아)

■ 완월동

- **완납**: 강성복(토마스 아퀴나스), 지상현(요셉), 최은필(베네딕도)
- **분납**: 강현숙(헬레나), 이우정(크리스티나), 조덕제(글레멘스), 최경림(안젤라), 최영민(요셉), 최호곤(프란치스코)

■ 용원 9,940,000원

- **완납**: 강순길(다비오), 고범률(안토니오), 김종현(이사악), 김치율(베드로), 박판수(필레몬), 박향진(엘리사벳), 손명숙(안젤라), 손봉선(실비아), 오봉석(레오), 유순남(비비안나), 이원수(스테파노), 정연호(바오로), 최명철(도마), 황현섭(아우구스티노), 익명 2
- **분납**: 김민정, 장재욱(요한)

■ 월남동 10,000,000원

■ 월영 10,740,000원

- **완납**: 김대진(프란치스코), 김정혜(소피아), 김준홍(토마스), 박재경(프란치스코), 서정숙(크리스티나), 윤중근(시몬), 이철리(요한), 이효원(안토니오), 이화춘(베네딕토), 김혜숙(루시아), 엄정석(바실리오), 임수택(세례자요한)
- **분납**: 강나리(아니시아), 강또금(레지나), 강성수(토마스 아퀴나스), 강승엽(여호수아), 강태규(미카엘), 강화정(데레사), 강회숙(스텔라), 곽철윤(요셉), 권기호(루시아), 권상태(비오), 김계수(즈가리야), 김교원(에두알도), 김근규(프란치스코), 김묘진(스텔라), 김문환(리노), 김민기(루치오), 김민철(안토니오), 김보옥(레지나), 김초혜(로사), 김현숙(세실리아), 김현주(크리스티나), 김희자(안나), 남상욱(마르티노), 남자경(에밀리아), 노수영(모니카), 문남둘(안젤라), 민현주(헬레나), 박경희(로사), 박분선(카타리나), 박성혜(레베카), 박희정(엘리사벳), 송춘기(발비나), 안은주(헬레나), 오정희(푸블리아), 이경숙(크리스티나), 이민자(레지나), 이성열(도미니꼬), 이승준(그레고리오), 이

승진(그레고리오), 이영희(베르디아나), 이정숙(루시아), 장영애(카타리나), 장용걸(알베르토), 장은실(벨라뎃다), 정순덕(모니카), 조순옥(엘리사벳), 조현철(바오로), 최성황(펠릭스), 최영수(안드레아), 최옥환(루치오), 한동은(스테파노), 허성배(프란치스코), 허은주(데레사), 조성진(아드리아노), 정마리아(마리아), 장윤희(수산나), 홍숙경(사비나), 황주연(아모스), ㈜민들레 생각

■ 의령 1,610,000원

- **완납**: 제훈(베드로), 김동원(엠마누엘), 진영희(요셉피나)
- **분납**: 신영도(루까), 박길용(안토니오), 박미영(데클라), 오경주(라파엘라), 강용전(가스발)

■ 장등 1,260,000원

- **완납**: 안정준(바오로), 최영주(안젤로)
- **분납**: 노종수(요셉), 이수일(비리버)

■ 장승포 25,000,000원

- **완납**: 강권수(요한보스코), 고영출(가브리엘), 김동현(스테파노), 김영숙(엔나타), 김영아(젬마), 김지현(안젤라), 노모연(누갈다), 노재수(요한), 박종란(세례자요한), 박종민(파비아노), 박종수(요한), 서정홍(요한보스코), 신영복(루카), 엄수훈(안토니오), 옥정석(바오로), 이민형(바오로), 이복길(토마), 이승철(마르첼로), 이천수(베드로)
- **분납**: 권영철(야고보), 김미정(엘리사벳), 김태현(베드로), 김현자(모니카), 류상윤(가롤로보로메오), 박명아(바실라), 반명자(데레사), 변주수(필립보), 서정미(카타리나), 안승천(아오스딩), 이상육(안토니오), 이수환(마르첼로), 이재현(베네딕도), 이종호(노엘), 전숙영(소피아), 정대명(스테파노), 조남성(베네딕도), 천태용(루카), 최종성(라우렌시오), 황윤식(라파엘)

■ 장평 2,800,000원

- **완납**: 서태욱(레지나), 김현석(시몬), 김현수(그레고리오), 공차순(베네딕다), 최창훈(베드로)
- **분납**: 강성만(마르코), 김재욱(야고보), 김점숙(마리아), 김태한(가밀로), 배현근(바오로), 변영신(요셉), 유현문(마태오), 장한흥(알베르토), 정연환(안토니오), 최선화(비비안나)
- **추가**: 김갑영(프란치스코), 김진철(시몬)

■ 중동 6,350,000원

- **완납**: 곽정희(스테파노), 권태문(토마), 김성룡(F.사베리오), 김성용(시몬), 김재갑(요셉), 김태훈(테오도로), 박나영(마르타), 안순이(실비아), 윤현희(마리안나), 이효원(도미니코), 최영진(가스둘로), 최소연(로사)
- **분납**: 강성란(수산나), 강정임(막달레나), 고귀임(제노베파), 고영호(필립보네리), 김덕근(프란치스코), 김명석, 김영지(안나), 김헌수(모이세), 손장원(바오로), 송수남(효임골롬바), 오병진(필립보), 유미란, 이경애(가브리엘라), 이정현, 전재욱(안젤로), 조금연(세실리아), 조대호(에우제니오), 최지완(알퐁소니고디오), 하정순(M.막달레나), 허성철(시몬)

■ 중앙동 7,590,000원

- **완납**: 김희경(로사리아), 김희영(율릿다), 성대웅(디오니시오), 송창민, 임성수(마르코), 전덕숙(크레센시아), 정병도(도마)
- **분납**: 문주영(사라), 손창일(프란치스코), 안효주(엘리사벳), 오경숙(체칠리아), 윤소라(리사). 이자형(다미아노), 이지홍, 정미옥(로사), 정미정(미카엘라), 주민석(스테파노), 최성준(로베르토 벨라르미노)
- **추가**: 신대성(광렬요한), 신순희(모니카), 이미선(비비안나), 홍대현(안드레아)

■ 지세포 1,810,000원

- **완납**: 김주현(데레사), 반효부(베드로)
- **분납**: 강명옥(미리암), 고영란(베로니카), 손정의(마리아 호세파), 양재식(파스칼), 이창근(안드레아), 임만악(젤마나), 장시언(아브라함)

■ 진동 5,050,000원

- **완납**: 김현조(마르코), 박호준(바오로), 배명점(로사), 백경민(가타리나), 안복례(아가다), 윤영래(요한), 이경모(라이문도), 이명희(안젤라), 이상업(요아킴), 황진환(루치오)
- **분납**: 김말순(안젤라), 변다경(프란치스카), 신혜은(글로리아), 안병한(가롤로), 이정길(토마스), 정홍근(세바스티아노), 황정환(베드로)
- **추가**: 김경희(아녜스)

■ 진영 3,050,000원

- **완납**: 김명호(마르티노), 김희옥(레지나), 송해숙(세실리

아), 심상용(요한), 이영순(아숨다), 정형애(마리안나)
- **분납**: 권지완(제랄드), 김형리(루비나), 노영곤(도미니코), 배해경(미리암), 서원미(엘리사벳), 송종식(율리아노), 신성철(안토니오), 양상옥(마태오), 이석규(알로이시오), 이장선(요한), 임순자(안나)
- **추가**: 정용경(골롬바)

■ 창녕 1,425,000원
- **완납**: 김영혜(베네딕도), 김재화(비오), 김차영(베드로), 손혜정(올리바)
- **분납**: 김호빈(알퐁소), 이근우(안드레아), 이지민(카타리나), 이창혁(남종삼요한), 황미정(미리암)

■ 칠원 2,000,000원
- **완납**: 김영진(아브라함), 김종백(대건안드레아)
- **분납**: 박상섭(요셉), 신승기(라파엘)

■ 팔용동 5,720,000원
- **완납**: 강병희(루시아), 강소연(데레사), 김미량(안젤라), 김윤조(프란치스코), 손성진(마르코), 이경범(야고보), 이수연(세실리아), 이정숙(알레타), 최금희(데레사)
- **분납**: 김동인(야고보), 김서용(마태오), 김정언(젬마), 박지원(제노베파), 백금선(아나스타시아), 오화선(요안나), 유숙희(데레사), 조은영(골롬바), 허원(요한)

■ 평거동 1,550,000원
- **완납**: 김대근(대건안드레아), 김휘정(말가리다), 박경연(루시아)
- **분납**: 권해주(토마), 서혜자(도미니카), 위문수(미카엘), 이성준(T.아퀴나스), 조인효(바오로)

■ 하대동 8,710,000원
- **완납**: 강윤수 (라우렌시오), 김명남(세실리아), 김민정(빅토리아), 김태준(베드로), 김혜옥(글라라), 엄혜진(엘리사벳), 이순복(세실리아), 이용현(요셉), 이종민(미카엘), 전종환(야고보), 정구상(다니엘), 조지훈(미카엘), 황두원(요한)
- **분납**: 강길중(요한), 김덕순(글로리아), 김환영(안토니오), 장숙련(율리안나), 주용태(프란치스코)

■ 하청 2,225,000원
- **완납**: 박진형(요한 마리아 비안네), 양옥자(마리아), 최광수(요셉), 최영환(요셉)
- **분납**: 강문효(스테파노), 김태우(가브리엘), 김혜경(산치아), 이창우(가롤로 보로메오)

■ 함안 10,173,000원
- **완납**: 강만복(토마스), 김정하(엘리사벳), 김찬두(루치아노), 원승주(창흡베드로), 윤혁재(레오), 이성자(데레사), 이진희(에스텔), 전영희(막달레나), 최비건(엘리사벳), 한임이(젬마), 한화숙(친니아), 황동순(마리아)
- **분납**: 박영순(마리아), 안상식(안드레아), 안영란(글라라), 이나현(안젤라), 이미호(베네딕토), 정영봉(레오), 조영규(다니엘)
- **추가**: 강훈석(비오), 안휘자(엠마)

■ 함양 2,300,000원
- **완납**: 김형규(파스칼), 이계호(율리엣다), 임병택(안드레아), 정다혜(로사리아), 조규성(고스마), 하수효(마르꼬)
- **분납**: 김명선(노아), 오준영(요셉), 이정호(가스발), 정보상(미카엘), 최동준(요한)

■ 호계 4,570,000원
- **완납**: 권흥국(베드로), 김기헌(베네딕도), 김한용(클레멘스), 윤필경(헬레나), 이상욱(프란치스코), 이한울이(에우세비오), 천은경(미카엘라)
- **분납**: 김원열(이냐시오), 조윤정(베로니카)
- **추가**: 전상준(엘리지오)

■ 회원동 2,990,000원
- **완납**: 문창용(다윗), 박성옥(카타리나), 신민섭(막시미노), 안수용(스테파노), 이수민(젬마), 이용석(다니엘), 정해조(레지나)
- **분납**: 김영기(마리아), 김천일(베네딕도), 변은주(세실리아), 서동일(요한보스코), 석유화(젬마), 이승희(아네스), 정점옥(베레나), 최서희(프란치스카), 최정한(베드로), 최준태(클레멘스), 탁재형, 함성렬(안셀모)
- **추가**: 류춘배(라파엘)

천주교 마산교구청 신축 추진위원회 T. 055•249•7121